

“클린 광주 보여주자” 폭염 잇은 채 손님맞이 구슬땀



Fina
WORLD
CHAMPIONSHIPS

광주수영대회 D-2

“세계인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광주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께서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회기간동안 깨끗한 도심 만들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9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인근에서 만난 대명클린 소속 직원들은 은땀이 땀에 젖은 채 도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대명클린은 광주시 서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다.

직원들은 운전기사를 포함해 3명이 한조를 이뤄 3시간씩 적재할 수 있는 수거차량에 연신 길거리에 놓인 종량제 봉투를 옮겨 실었다. 오전 6시부터 쓰레기 수거를 시작해 오전 8시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된 수거작업이었지만, 전날 배출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여전히 곳곳에 쌓여있었다.

도심 환경정비현황 가보니

방치된 쓰레기 꼼꼼히 수거
선수촌 인근 제초작업 분주
도심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
“작업량 2배 이상 늘었지만
광주 이미지 제고 자부심”

보통 한 구간당 30분 정도의 수거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날은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이날 동행한 구간은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센트럴광호텔, 상무CGV 앞을 지나 총 950m 구간으로 상무지구 내에서도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직원들은 종량제봉투는 물론 부서진 가구·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투·플라스틱 폐지재 등 오랫동안 방치된 각종 폐기물들도 함께 치웠다.

대명클린측은 어느 때 같으면 무단방치 폐기물 등 수거대상이 아니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지만,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호텔스런 쓰레기까지도 수거하는 것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고 한다.

9번째 수거일을 하고 있는 정중식(44)씨는 “전 세계인이 모여드는 큰 대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수거업체 직원들(왼쪽)과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 인근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광산구청 소속 공공근로자들.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광주도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방치된 쓰레기까지 치우다 보니 작업량이 두배 이상 늘었지만, ‘클린광주’의 최전방에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힘을 내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지난 5일 오후 4시께 찾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인근 철도변에선 제초작업이 한창이었다.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른 이날 광산

구청 소속 공공근로자 4명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무장을 한 채 호미 등 작업도구를 든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선수촌과 걸어서 5분 거리인 이곳은 선수단 관계자들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 중 하나다. 여름철 빨리 자라는 잡초의 특성상 광산구청은 2-3일에 한번씩 근로자를 투입해 말끔한 모습이 유지되도록 특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처럼 광산구 녹지공원과 주무관은 “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수거업체 직원들(왼쪽)과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 인근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광산구청 소속 공공근로자들.

막일인 12일까지 광산구내 녹지공간 제초 등 환경미화 활동을 추진해 수영대회를 찾는 관광객과 선수단에게 깨끗한 광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며 고 밝혔다.

동구, 남구, 북구 공무원들도 휴일까지 번갈아 채 불법광고물 정비 등 시가지 개선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남구는 이날 말까지 서문대로와 대남대로, 봉선로 등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팀을 집중 운영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로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휴일에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김선우 남구 도시미관팀 주무관은 “광주에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린 만큼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풍선형 광고물(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신안·영광 등 전남 해안

선원 추락 실종 잇따라

신안과 영광 등 전남 해안에서 선원들이 바다로 추락해 해경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9일 오전 10시 30분께 신안군 신의면 평사도 북동쪽 1.4km 해상에서 69t급 예인선 K호에 타고 있던 기관장 A(78)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씨는 잠시 정박하기 위해 내려놓은 닻을 올리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영광군 낙월면 상남월도 동쪽 3.7km 해상에서 2.9t급 연안자망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A(55)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해경 상황실에 접수됐다.

선장 B(55)씨는 이날 새벽 5시 30분께 출항해 투망 작업 중 A씨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 주위를 보니 물속에서 하우저끼리고 있었다고 신고했다.

목포해경은 잠수요원과 경비정, 민간 구조선, 헬기를 투입해 물에 빠진 선원을 찾고 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5개 교육·시민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의 한 사립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교육·시민단체 “기말고사 문제 유출 엄정 대처해야”

시교육청에 보완책 마련 촉구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3학년 기말고사 수학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5개 교육·시민단체들은 9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학금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해 시험지 유출사건 발생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또 다시 유사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터져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런 사건으로 시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와 감독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고교 기숙사와 교육력 제고 사업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한 고내 교과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문제까지 불거졌다”며 “고교 내신 불신이 공교

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와 함께 내신, 생활기록부의 공정성·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전체 고교의 교무·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기숙사·교육력 제고 사업과 교내경시대회 등을 통한 성적우수자 특별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첫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2007년 광주지방경찰청이 개청한 이래 상습음주운전자 차량이 처음으로 경찰에 압수됐다.

광주북부경찰은 9일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윤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운동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윤씨는 같은 날 두 시간 후에도 음주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 병원까지 2

km 정도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집에서 홀로 막걸리를 마신 윤씨는 당시 운전면허취소사건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01년부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총 9번 적발됐다. 그는 2010년 1번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고도, 계속된 음주운전 2번의 징역형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윤씨의 예티언 SUV차량을 압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출소 10일만에 또...무전취식 전과 51번 입건

무전취식을 일삼다가 수감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40대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10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북부경찰은 9일 출소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업주를 때린 정모(47)씨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일 밤 11시 4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한 술집에서 18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의 머리를 손으로 2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무전취식 전과만 51번에 달하는 정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3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달 28일 출소했다가 열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단정형 직업이 없는 정씨가 재범 가능성이 크고 도망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처음 본 여성 2시간 넘게 따라다니며 구애... 결국 경찰서행

“처음 본 여성을 2시간 넘게 따라다니며 구애한 30대가 경범죄법 위반 혐의(불안감 조성)로 경찰서행.”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6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길거리에서 B(여, 20)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

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고 따지며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

○이날 커피숍에 들어간 B씨를 자정 무렵까지 저안에서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연락처를 물어본 것이 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사 비밀 유출 의혹 경찰간부 영장 또 기각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간부에 대한 경찰의 재신청 영장을 또 기각했다.

광주지검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광주정 A 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금융실명법 위반(차명계좌)을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지난번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지휘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주현의인 공무상 비밀누설 입증 근거가 빈약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해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신청이 기각된 만큼,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A팀장은 B변호사에게 다른 경찰간부 수사 중인 부동산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

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B변호사는 A 팀장에게 전해 들은 수사 정보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경찰에게 선처 받고도 해주겠다’며 요구한 5500만원의 반도,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지난 달 구속됐다. 한편 A팀장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 각 물 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 고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9타경 2191	1	장성군 장성읍 청은길37 (청운아파트 2), 1층 107호 62.82㎡	다세대	53,000,000	
[대지/임야/전답]					
2019타경 62230	1	영광군 군남면 설리내 1366-13 5846.6㎡	답	93,545,600	농지취득자격증명 93,545,600요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차이를 지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농지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는 최고기대수신인이 매각신청일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능이 될 때에는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매각대금에 반영된다. 불합합일 경우로 인한 환상부과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2. 공익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일에는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종되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적자문 매수신고인으로 본다.
3. 매각일: 2019. 7. 24. [수] 10:00
4. 매각신청일: 2019. 7. 31. [수] 16:00
5.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6. 매각방법
 - ① 입찰방법: 비공개 기밀정보를 사전공개,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군 발행의 자기인수 또는 현금 또는 현금인수 지급보증서(보증금)를 제출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하여 한다.
 - ② 2인 이상 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명부에 각자의 자분을 명백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종료된 관공의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기대수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고가격을 실수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④ 최고기대수신인과 자문위원수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된다.
7.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매각결정통지서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기간은 지정된 날의 3일정도를 초과할 수 없다. 매각대금 및 차익금,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차관권, 가압권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차관권이나 가압권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차관금회상납금 납부 후 등록세수입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등본을 첨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한된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세 영수증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준다.
-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위의 차관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등권인신고로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특정인을 가진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할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② 매각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명가서를 구입하는 민사조정(신청)과에서 전자통지해나 하지만 출력물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후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된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습니다.
- ④ 입찰방법에 나오는 설명은 입찰문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조건이나 선반납금도 포함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찰명장을 첨부한 위임장등 반드시 첨부하고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기대수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결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및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⑦ 신청된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추첨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반납금을 하지 않으므로 무리없는 계산의 의 공고일 법원에 비정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⑨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법원법정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1.auction.go.kr [검색공고 -> 매각공고 선택]
- ⑩ 단정형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거나 다른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물건이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승계명령의 청구 등 불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열람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물건 공고나 비정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7. 1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성관